

## 기다리던 명품 수목드라마 <가면> 인기 회오리

시청률·실검어 1위, 드라마평점부문과 소셜화제성지수 석권



새 수목드라마 <가면>(극본 최호철, 연출 부성철)의 인기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5월 27일(수) 첫 방송에서 7.5%의 시청률(닐슨코리아/전국)로 KBS2 <복면검사>(5.3%)와 MBC <맨도롱 또똔>(7.0%)을 가볍게 제쳤고, 다음날 오전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유지하며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 DAUM에서 실시 중인 드라마 평점부문에서도 8.2점으로 KBS2 <복면가왕>(6.8점)과 MBC <맨도롱 또똔>(7.5점)을 물리쳤고, 소셜화제성지수에서도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방송 등을 모두 제치고 1등을 차지하는 등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애는 2년 만에 SBS로 복귀하면서 내공 있는 연기로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자신과 도플갱어처럼 닮은 재벌가 여성 서은하의 삶을 살게 되는 지속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경쟁과 암투, 음모와 복수, 미스터리가 설 새 없이 휘몰아치는 구성과 감각적 연출은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또 뻘한 재벌 스토리와 신분 상승 같은 통속적 소재를 파격적인 전개와 섬세한 심리묘사로 새롭게 탄생시킨 최호철 작가는 <비밀>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가면>으로 확고하게 스타작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연기와 대본, 연출 3박자를 모두 갖춘 <가면>은 4회 방송 만에 전국시청률 1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시청률로 진입하여, <별에서 온 그대>이후 시청자들이 목말라 했던 명품 수목극의 탄생을 알렸다.

### 탁월한 심리묘사로 새로운 갑을 로맨스 창출 <따말> 제작진 다시 뭉쳤다 <상류사회>



<풍문으로 들었소>의 인기를 이어갈 <상류사회>가 6월 8일(월) 첫 방송됐다. <상류사회>는 신분을 숨기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재벌 딸 윤하(유이 분)와, 이를 알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개천 용준기(성준 분)의 엇갈린 만남을 그리고 있다. 게다가 윤하는 무늬만 재벌일 뿐, 그룹 지분 하나 없고 집안에서 구박받

는 천덕꾸러기일 뿐이다. 여기에 박형식이 맡은 창수 역은 재벌 집 아들로 태어나 원하는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곁에 두려는 남자. 그런데 하필 그 여자가 고졸의 백화점 푸드마켓 알바생(임지연 분)이라면?

다분히 통속적인 소재를 하명희 작가와 최영훈 PD는 역시 다르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청자들에게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던 터. 첫 회에서 이미 캐릭터 별 성격과 가치관, 내적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시청자들을 몰입시켰고, 고두심, 윤주상 등 중견배우의 농익은 연기에 유이, 성준, 박형식, 임지연의 체화된 연기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기대를 주었다.

6월 3일(수) 목동 SBS 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최영훈 PD는 “기형도 시인의 시 중 ‘사랑을 목발질하며 살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이 시대 청춘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절름발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목발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춘의 애환을 그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랑과 결혼을 보는 20대들의 네 가지 시선을 그린 <상류사회>는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 중견 연기자들의 불꽃 연기 <돌아온 황금복> 심혜진, 전미선, 이해숙... 귀가시간 앞당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새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이 6월 8일(월)부터 방송 중이다. <돌아온 황금복>(극본 마주희, 연출 윤류해)은 여주인공 황금복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환경미화원 엄마를 잃은 후, 강자의 만행과 사회적 무관심에 맞서 싸우며 엄마의 사고를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이다.



탤런트 신다은이 황금복으로 분해, “내가 과연 타이틀롤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는 염려가 무색하게도 스펙도 없이 거친 세상에 내던져져 온몸으로 난관을 헤쳐가는 여주인공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드라마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중견들의 활약은 이미 방송 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6월 4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윤류해 PD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중견들 모시기 힘들었다”며 특별히 중견 연기자 캐스팅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견들은 “일일극에서도 이런 대본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전노민)”,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이혜숙)”, “대본을 보면 느낌이 온다. <김탁구>나 <해품달>처럼 느낌이 와서 선택했다(전미선)” 등의 감탄으로 <돌아온 황금복>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윤류해 PD의 철학처럼 여러 가지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가 쏠쏠할 <돌아온 황금복>은 월~금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다.

## 1000회까지 탄탄대로... 거침없이 달린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 500회 축하연 열려



〈웃찾사〉가 6월 7일(일) 500회를 맞았다. 논버벌 퍼포먼스 그룹 '웅알스'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웃찾사〉 500회 특집은 기존 코너를 비롯해, 〈웃찾사〉의 레전드 코너로 뽑힌 〈웅이 아버지〉, 〈화상고〉가 방송돼 의미와 추억을 선사했다. 또 〈웃찾사〉의 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컬투, 리마리오,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 오인택, 김기욱, 박상철, 양세형 등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더해 주었다. 시청자들도 뜨겁게 반응해 '웅이 아버지'와 '홍현희'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3년 4월 방송된 〈웃찾사〉는 개그 프로그램의 대명사도 불리며 20% 중반의 시청률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가 2010년 폐지됐고 개그맨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질치부심한 제작진과 개그맨들의 염원으로 2013년 다시 탄생한 〈웃찾사〉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코미디 명가의 부활을 알렸다.

3월 봄 개편에서는 일요일 저녁 8시 45분에 편성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시청률은 전성기 때만 못하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시청자들의 평도 호의적이다.

6월 4일(목)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열린 500회 축하연에서 안철호 PD는 "〈웃찾사〉 500회가 10년 만인 2013년이 아니라 12년 만에 왔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다. 오래 기다렸다. 앞으로도 〈웃찾사〉가 국민예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불타는 청춘〉

중년들의 추억여행에 시청자 열광



매주 금요일 밤 11시 30분, 중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불타는 청춘> 기자간담회가 5월 28일(목) 여의도 썬딩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국진, 강수지, 김혜선, 김일우, 김도균과 15일부터 프로그램에 합류한 김완선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봄 개편부터 방송된 <불타는 청춘>은 싱글 중년스타들의 친구 찾기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은 산 좋고 물 좋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심으로 돌아가 우정을 쌓아간다. 간혹 썸 타는 기류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출연자들은 20대 때보다 훨씬 느긋하고 편안한 관계를 보여준다.

출연자 중 막내로 손에 물마를 날이 없는 김혜선은 "30~40대는 후딱 가더라. 친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다시 왔다. 친구를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정말 좋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창태 예능국장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연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탈 구성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 그만큼 <불타는 청춘>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박상혁 PD 역시 "인위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젊었을 적 친구들과 함께 놀고 여행 갔을 때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 공동제작 성공기 ①

## SBS만의 차별화된 세 가지 전략으로 인기 고공 행진

제작진 현지 투입·철저한 중국 본토화·출연진 코믹화가 주요

예능국 김용재 부장(달려라 형제) 한국측 총 프로듀서

사실 국내의 시청률을 생각하면 어려운 결정이지만 제작본부에서 중국에서의 대성공과 수익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중국역사상 획기적인 시청률과 이슈를 만들었다. 타사도 요즘 이러한 SBS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철저한 현지 본토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중국은 프로그램이 스토리가 있어야하고, 중국인의 웃음은 일차적인 웃음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다. 시즌1 한국 측 총연출을 맡은 조효진 PD는 아이템과 게임, 음악 등 완벽하게 본토화한 프로그램을 제작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타사와 한국제작사들은 이러한 노력과 고민이 부족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다.

세 번째는 중국연예인이 처음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에서는 스타 연예인이 우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이 품위를 버리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달려라 형제>에서 중국 톱 여자 스타들이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고 망가졌다. 중국 방송관계자도 어떻게 연예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강의를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이렇듯 차별화된 전략으로 SBS는 중국방송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제작진의 노고가 있다. 시즌 1의 조효진 PD는 기초를 튼튼히 만들었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시즌2가 5%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달성할 때 한국 측 편집PD와 김주형 PD는 4일 밤을 호텔도 못가보고 절강방송 편집실에서 작업을 하였다. 심지어 김주형 PD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가면서 제작했다. 한국보다 4-5배는 어려운 중국 현장에서 SBS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예능국 후배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에선 중국판 <런닝맨>-<달려라 형제>를 현상급 프로그램이라 부른다. 현상급 프로그램이란 시청률이 3%이상 나오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재 <달려라 형제>가 방송되는 금요일에는 중국인들이 일찍 귀가하고, 직장, 학교, 각종 모임에서는 이름표 떼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인 양회에서 <달려라 형제>를 극찬하는 바람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중국 방송관계자들과 학자들도 중국 방송사상 전무후무한 시청률과 사회적 이슈를 만든 건 SBS가 처음이라고 인정한다. MBC <아빠 어디가>나 <나가수>는 플라잉피디 한 명이 컨설팅 한 것이라서 한국의 스태프가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제작은 SBS가 처음이다. 중국과의 공동제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SBS만의 차별화된 전략전술에 있었다.

첫 번째는 <런닝맨>의 메인PD와 작가, <런닝맨>의 스태프들이 전원 참여하는 방식.

##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3·1절 특집 <SBS 스페셜>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이 5월 27일(수)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181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까지 받게 돼, 동료PD들과 시청자로부터 수작임을 인정받았다.

방통심의위 심사위원들은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이 조선의용대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었음에도 분단과 좌우 진영논리 속에 주목받지 못했던 김학철 선생의 삶을 손녀의 시점에서 되짚어, 우리 민족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지진대피 훈련에 사원들 적극 참여, 대응체제 점검

5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전사적 차원에서 정립한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는 한편, 사원들에게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숙달시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려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훈련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개인 보호와 대피절차를 실제 행동화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요령 교육, 화재발생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에 대해 사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0월에는 동절기 화재발생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SBS 문화재단

### 대학로 ‘하우스 콘서트’ 사원 무료 관람



SBS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하우스 콘서트’ 정기공연 시리즈에 그룹 임직원들을 초대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하우스 콘서트’는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생생한 감동을 나눌 수 있어 새로운 공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 정기공연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리며, 6월부터 사전 예약하는 사원들은 본인에 한해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사원증 지참은 필수. 공연 회차와 프로그램 확인은 [www.thehouseconcert.com](http://www.thehouseconcert.com)에서 할 수 있고, 예약 및 문의전화는 010-4131-7061로 하면 된다.

‘하우스 콘서트’는 <희망TV SBS>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몇 차례 열릴 예정이다.

## 쾌적하고 편안하게 리모델링...문헌자료실 오픈

목동 사옥 9층에 위치한 문헌자료실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창가쪽에 오픈형 책꽂이가 새로 배치되어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공원의 전망을 내려다보며 독서할 수 있는 오픈형 탁자와, 집중도를 높이고 사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한 칸막이형 책상 두 종류가 배치되어 국내외 신간도서와 잡지, 신문 등을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카이브팀 관계자는 “현재 문헌자료실은 5,200여권의 장서와 1,300여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 희망 도서 신청 등 사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헌자료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된다.

## SBS의 당당한 권리찾기 ‘저작권신고센터’ 오픈

‘SBS 저작권 신고 센터’가 WISE 내에 오픈되었다. ‘SBS 저작권 신고 센터’는 사원들이 SBS의 소중한 저작권이 침해 받는 사례를 발견하면 WISE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신고는 SBS WISE 홈 화면 왼쪽 하단의 [도움방]의 ‘저작권신고’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된다.



‘SBS 저작권 신고 센터’를 공동운영하는 SBS 기획팀과 콘텐츠허브 콘텐츠사업협력팀 담당자는 “SBS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스트리밍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발견하면 SBS 저작권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사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회사에서 1종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5월 21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1층에서 서부면허 시험장의 ‘찾아가는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가 시행되어, 약 100여 명의 사원들이 1종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현업일로 바쁜 사우들의 편의를 위해

경영지원팀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는 올 11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며, 내년에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 SBS 스포츠

### 박지성 출전 ‘맨유 레전드 매치’ 생중계

‘맨유의 산소탱크’ 박지성의 부활이 생중계된다.

SBS스포츠는 오는 14일(일) 밤 10시 20분(이하 한국시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매치를 생중계한다. 맨유 레전드 매치는 맨유와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은 레전드들이 펼치는 자선 경기로, 올해에는 영국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다.



박지성은 브라이언 롱슨이 이끄는 맨유 레전드 선수단의 핵심 멤버로 필 예정이며, 박지성 외에도 폴 스콜스, 에드빈 판 데사르, 루이 사하, 앤디 콜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폴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뮌헨 선수단에서는 박지성의 전 동료 마크 판 보멜을 포함해 발터 유간스, 로이 마카이, 다니엘 반 바이텐, 지오바니 엘버 등이 출전한다. 박지성이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부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를 단독으로 중계해온 SBS스포츠는, 박지성이 은퇴 후 다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 역시 생중계하게 됐다. 박지성은 SBS 김민지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고, 지난 2014 브라질월드컵 당시 SBS 방송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SBS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같이 고민해주는 청취자 있어 행복해요”

〈장예원의 오늘 같은 밤〉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밤 12:00-02:00

〈장예원의 오늘 같은 밤〉은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날의 시작, 그 묘한 경계의 순간인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밤>을 맡아 한밤의 청취자들에게 다가선 지 벌써 200일이 넘었네요. 처음 라디오 DJ 제안이 왔을 땐 주저했습니다. 저 혼자 두 시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경험이 부족한 제가 다른 이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너의 일상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선배의 조언에 작년 10월,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한 달을 넘길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광고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 하기도 하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바꿔 말한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웃음이 터져서 노래가 연이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실수를 청취자들은 귀여워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 때 처음 라디오의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텔레비전은 힘든 날에도 기분을 숨기고 밝은 척 해야 한다면, 라디오는 매일 하는 방송이다 보니 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청취자들은 그 날 목소리 톤, 멘트 사이의 호흡만으로도 제 기분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청취자들이 저에게 조언과 응원을 부탁하는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절 때문이라 그런지 일이 너무 하기 싫다 등 저의 걱정거리를 던졌을 때, 긴 손 편지로, 문자로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많은 방송인들이 TV 프로그램은 포기해도 라디오는 꼭 하고 싶어 한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라디오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할까 싶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고작 200일 지난 새내기 DJ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예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연·전시

## 올여름 가장 시원한 뮤지컬이 왔다! 〈엘리자벳〉



일시 : 6월 13일 ~ 9월 6일  
장소 :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옥주현이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다시 돌아왔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유럽 최고의 미모였다는 씨씨(엘리자벳의 애칭)의

드라마틱한 일대기에 '죽음'이라는 판타지적 캐릭터를 등장시켜 국내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활약했던 옥주현, 전동석, 김수용, 최민철, 이지훈 등 최정예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여기에 뮤지컬 배우 조정은, 신성록과 가수 세븐이 합류해 무대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죽음' 역할을 맡은 가수 세븐은 역대 가장 역동적인 '죽음' 캐릭터를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다. 세븐이 2012년과 2013년 공연에서 '죽음' 역으로 출연한 김준수를 뛰어넘는 연기와 열정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앞서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등을 통해 국내에 유럽 뮤지컬 돌풍을 일으킨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는 세븐이 부른 '그림자는 길어지고'의 음원을 듣고, "그저 환상적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세븐의 노래하는 스타일과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력 등 모든 것이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림자는 길어지고', '마지막 춤', '나는 나만의 것' 등 중독성 넘치는 넘버를 놓치지 마시라.

## 메르스,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손 소독제 비치, 특수마스크 지급, 실내 소독 실시

SBS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사원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협력팀, 경영지원팀, 시설팀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건물 로비에 손 소독제가 설치된 데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집실, 식당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하였다. 병원 취재팀에게는 N95 특수마스크를 지급하고 있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소독약품도 곧 구매하여 취재 전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할 계획이다.

노사협력팀 건강관리실의 변영옥 사원은 "우리 회사에는 메르스 확진자가 없다.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사원도 없다. 그러나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지원팀은 필요한 부서에 알콜 손 소독액을 나눠주고 있다.(문의전화 #7141)

시설팀에서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본사와 등촌동 공개홀, 일산제작센터에 야간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시설팀은 한 달에 한 번씩, 6~8월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살충을 위한 소독작업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는 '닥터솔루션' 약제를 구입해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닥터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르스 방역을 위해 권장하는 약제이다.

###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p><b>1 정의</b></p> <p>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p>	<p><b>2 증상</b></p> <p>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b>3 전염</b></p> <p>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b>4 전파</b></p> <p>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p>	<p><b>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b></p>	<p><b>5 예방</b></p> <p>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p>
<p><b>6 자가 격리</b></p> <p>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합니다.</p>		<p><b>7 진료</b></p> <p>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p>
<p><b>8 진단</b></p> <p>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p>		<p><b>9 치료</b></p> <p>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p> <p><small>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small></p>
<p><b>10 장비</b></p> <p>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p>		

### 경조사

- 축하합니다  
보도국 국제부 장선이 기자 출산(6월 9일)  
보도국 시민사회부 김학휘 기자 결혼(6월 13일)

- 애도합니다  
경영지원본부 기술국 인프라관리팀 홍성표 차장 모친상(6월 3일)  
경영지원본부 기술국 송출기술팀 김학현 사원 조모상(6월 10일)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수예당 화과자 등)을 드립니다.

